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김 정 명**

연구자 : 이 광 호
노 혁
이 혜 정

- I. 서 론
- II. 기존보호지원 대책의 내용
- III. 정책건의

I. 서 론

1.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청소년과 관련하여 쓰이는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1) 비진학 청소년 : 기간학제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을 주간, 정일제 출석수업의 형식에 의하여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의 총칭. 개념 사용의 논자에 따라 방계학제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포함 여부가 다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고, 현재 각급 학교의 최종 학년(중 3, 고 3 등)에 해당하는 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없거나 진학이 불가능한 자를 일컫기도 함.

(2) 중퇴 및 비진학자 : 정규학교에서 비행, 질병,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중

* 이 논문은 본원의 1989년도 공동연구사업인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요약한 것임.

** 김정명 : 본원 책임연구원/이광호 : 본원 주임연구원/노혁·이혜정 : 본원 연구원

단한 청소년과 일정한 단계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계속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의 총칭.

(3)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기간학제에 속하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중 근로청소년을 제외한 재수생, 미취업 청소년을 칭함.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가지 진로유형을 준거로 하여, 비교적 일이 없는 청소년을 한정하고 있음.

(4) 무직·미진학 청소년: 1985년 청소년에 관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과 세부계획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무직은 곧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함과 미진학은 아직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의미로 쓰여진 듯함. 엄밀히 말해 무직과 미진학은 현 상태의 개념과 진로유형 준거 개념의 혼합임.

2)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혼란을 피하고 연구의 성격상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개념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함.

경제활동과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 수업있는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병등 기타 사유로 취직이나 취학하지 못한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3)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양적 규모를 비교의 편의상 1985년을 기준으로 보면

(1)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영역에서는 대개 14-19세 인구를 대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취학자, 취업자, 재수생, 군입대 및 재소자를 빼는 방법으로 약 54만명 정도로 추산함.

이 경우 전체 인구가 다소 많게, 취업자는 정규학교, 준학교 체제 그리고 연령에 따른 학력 인구의 추정의 어려움 등으로 다소 적게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1985년도 연령 계통별 실업자 현황에 따르면 15-19세 사이가 79,000명 20-24세 사이가 180,000명으로 15-24세 사이의 무직 청소년은 259,000명으로 추산됨.

(3) 정부의 청소년 종합대책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1985년도 13-19세 사이의 고퇴 이하 무직·미진학 청소년과 떠돌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는 총 40,093명으로 집계되었음. 이 결과는 방문조사에 의해 집계된 것이므로 가출 및 행방불명 등과, 무직 기준 적용의 모호함에 의한 제외 대상의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 등으로 실제 일정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지원이 요청되거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 보임.

(4)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연령 범주상 9-14세 사이의 청소년 중 무직 상태에 있는 자를 국교 중퇴자, 중학 미진학자, 중학 중퇴자로 추정하고, 15-24세 사이의 청소년 중 무직 청소년은 경제기획원의 조사를 참고하여 그 총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1989년 현재 양적 규모

<표 1>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양적 규모 추정량

(단위: 명)

구 분		1985년	1989년
9-14세	국 교 중 퇴 자	2,313	552
	중 학 미 진 학 자	7,075	2,305
	중 학 중 퇴 자	29,052	28,025
15-24세	실 업 자	259,000	179,000
9-24세	계	297,440	209,882

를 다음과 같이 추산함.

(5) 이상과 같이 추정한 양적 규모 차이의 의미는 대상 연령 범위와 추정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의미 뿐 아니라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존재형태의 다양함을 시사함.

4) 1989년도 정부의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13,255명의 청소년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급한 보호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 칭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함. 즉 무직·미진학 청소년 중에서 자의전 타의전 간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로 한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으로 정의함.

5)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학생, 근로, 요보호 청소년 등 여러 청소년 집단의 경계에 산재해 있으면서, 어느 한가지 성격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존재함.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학적으로 주변인적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들은 주변인 중의 주변인으로 볼 수 있음.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비행화 우려 집단의 선도나 사회적 낙오자 및 추방자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의 문제 접근을 탈피하여 청소년 실업 대책적 차원에서의 대안적 접근이 요청됨.

2.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

1989년 5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9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 수는 13,255명으로 이는 전체청소년인구(13,690,000명)의 약 0.1%에 해당됨.

1) 일반현황

(1)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73.3%)가 여자(26.7%)에 비해 약 2.6배 많음. 이는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표」지침 항목 제5항에 의해 중·고졸 이후 결혼 연령에 해당하는 여자가 많이 제외되었고, 저임금 단순노동 직종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고용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 연령상으로는 15-19세가 68.1%, 학력은 중졸 이상이 72.1%로 나타남. 이것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상급학교 진학실패에 의한 것임과 이들 중 고졸 이상이 35.0%라는 사실로 무직·미진학 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고등실업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받을 수 있음.

(3) 가정배경: 부모 중 한쪽이 없거나 양친이 사망한 경우는 37.1%, 부모 가출이 7.2%, 부모 중 신체장애나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13.9%로 1988년 현재 우리나라 불안정 가구 비율 45.5%와 비교해 볼 때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가정이 다른 청소년 가정에 비해 문제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가정생활 만족 여부에 대해 73.8%가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줌.

(4) 경제적 배경: 이들 중 89.1%가 월 평균 소득 3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1988년 현재 우리나라 월 소득 계층별 가구 백분비에 의한 수치가 33.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이들이 경제적 면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학을 못한 사유로 경제적 문제가 55.7%, 현재 고민거리 중 취업 및 가정빈곤이 67.1%라는 결과에

의해서 이들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5) 사회생활 : 자신들의 무직·미진학 상황에 대한 이유로 기술부족(20.8%), 실력부족(22.2%)을, 고민사항으로 취업이 45.2%, 희망사항에 취업이 57.4%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현 상황이나 고민의 해결, 희망사항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취직시험 응시 및 직업소개소 방문이나 직업훈련교육 및 학원수강 경험을 해 본 경우는 각각 25.9%, 15.2%에 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단체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22.3%만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사회생활에 대해 이들이 소극적인 성향을 가졌음을 보여줌.

(6) 고민 및 희망사항 : 고민거리로는 취업(45.2%), 가정빈곤(21.9%), 진학(10.7%)의 순이었으며 희망사항은 취업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곤란이라는 것과 아울러 이들 스스로가 경제적 곤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들의 사회생활 및 의식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216사례를 표집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1) 연령별 고민사항 : 연령을 14세 이하, 15-19세, 20세 이상으로 나누고 각 연령에 따른 고민사항을 알아본 결과 각 연령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랐음.

(2) 성, 연령, 학력에 따른 희망직종 : 성, 연령, 학력에 상관없이 희망사항으로 취업이 가장 많았으나 취업직종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많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기능직이나 단순 근로직보다는 사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택해야 할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3) 성에 따른 가치관 및 사회생활 : 행동양식이나 고민사항, 장래인식에 있어서 남녀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음. 의식구조 및 가치관, 사회생활은 남녀에 따른 차이보다는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서의 공유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논 의

전수조사 결과의 분석과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1) 가치관 :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가치관은 다른 청소년 즉 학생이나 근로 청소년과 별다른 차이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친구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에의 만족도, 중요한 타자로서의 부모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반응 결과는 이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국가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도덕심도 강하고 전통과 규범을 비교적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2) 행동양식 : 청소년단체 가입 희망 여부나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고민의 해결, 희망사항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 여부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이들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에 반해, 행동양식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같은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차이는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무력감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무직·미진학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무직·미진학 상황이 길어질수록 무력감, 열등감, 소외감, 패배의식 등이 생기고 심해지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현실적응에 곤란을 느끼게 됨. 따라서 이들의 무직·미진학 상황 자체와 함께 무직·미진학 상황의 지속 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음.

한편, 이들은 자신이 무직·미진학으로 된 원인으로 개인적인 성향, 태도, 능력이나 가정, 사회의 구조적 문제 중 어느 한 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자 모두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

II. 기존 보호 지원 대책의 내용

1.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조사의 현황과 개선 방향

1985년 이후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의 추이와 문제점 및 그 개선책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의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실태 파악은 1984년 11월 28일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곧 이어 1985년 3월 20일 '세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루어진 것임. 즉 세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처음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조사 및 보호

지원 사업이 구상 추진되었음. 이 사업은 지방행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비행 우려가 큰 무직·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여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임.

2) 1985년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89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음. 세차례 실태조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3) 1985년 이후 모두 세차례에 걸친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조사는 그 조사방법상 전수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임.

둘째, 조사과정상에서 연령이나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축소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

세째, 실태조사 과정에서 명시적 제외 대상자 이외에 실제 파악 불가능한 청소년이 존재(가출 및 행방불명 청소년 등)하며, 부모나 본인의 은폐성과 조사기관의 행정적 편의성 및 외적 조건이 작용함.

네째, 실태조사의 목적이 모호함.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청소년 수가 일반인의 상식적 기대 수준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이에 바탕을 둔 보호 지원 대책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4) 현행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개선·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현재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사 기준을 통

〈표 2〉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비교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제3차 조사
실시기간	1985. 5. 15-6. 15 (약 30일간)	1987. 7. 30-9. 10 (약 40일간)	1989. 5. 1-6. 30 (약 60일간)
연령범위	13-19세	9-19세 9-24세	9-24세
학력범위	고퇴이하	고퇴이하	제한없음
대상영역 구분	무직·미진학 청소년 며들이 청소년	중점보호 대상자 일반보호 대상자	구분없음
대상선정 기준	구체적 기준 없음	불우, 결함가정 출신과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 업 중단자나 졸업 후 무직, 불안정 취업자	구체적인 제외 대상에 시(1장 3절 참조)
조사방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내용	일반 현황(연령, 학력, 성별) 및 가정환경, 현 재 하는 일, 희망사항	1차 조사와 동일	일반 현황 및 가정환 경, 생활환경, 사회생 활, 의식구조, 희망사 항
조사된 수 (명)	40,093 2,650 42,743(계)	6,313 10,155 16,468(계)	13,255

한 현황 파악을 대신해 각 읍·면·동 청소년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상설로 불우 청소년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자신과 부모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그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유지나 청소년 지도위원, 일선 행정요원들의 상시적 추천을 병행할 수도 있음. 한편 중앙 청소년정책 담당기관은 일정 시점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현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 한편 신청된 청소년에 관한 자료는 종합지원 센터

등 지원 관련 전문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방법은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일선 청소년 지도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함.

2. 보호 지원 대책의 현황과 성격

1985년 이후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보호 지원 대책과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

이 지적될 수 있음.

1) 진로지도 사업은 주로 취업알선, 취업 및 직업훈련 알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1988년에 들어 사업 내용이 다소 확장되어 사설강습소 위탁훈련 방안등이 포함되었음. 그 지원은 지역단위 사업에 크게 의존하였음.

2) 사회복지적 지원 사업은 주로 기관장과의 상담, 건전가정과의 결연, 이웃돕기 대상으로의 선정 및 전직지와 산업체의 견학이 대부분임.

3) 이상과 같은 보호 지원 사업의 내용과 운영체제상의 성격 및 문제점은

첫째, 사업 내용이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타 다른 청소년의 지원 내용을 부분 할당하는 보편적 처방 위주에 치중하여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선택적 처방의 결여.

둘째, 지원 내용간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대상이 추상적이어서 지원이 일회적이고 단편적임. 따라서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장기화할 수 없음.

셋째, 보호 지원 사업의 전달 체계가 일반 행정 계통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지원

사업에 있어 전문성의 결여는 물론 효율성의 제고가 어려움.

III. 정책 건의

1. 정책 과제의 기본 구상

1) 정책 과제의 배경 기준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서 정책 과제 선정의 배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보호 지원 대상의 개별화 및 구체화

(2) 보호 지원 성격의 세분화, 집중적이며 다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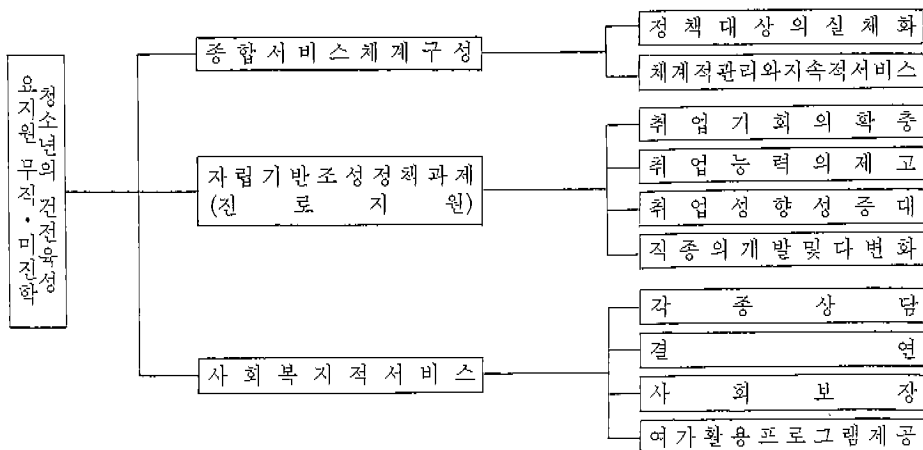
(3)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처방 *selective intervention* 과 일반 모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편적 처방 *universal intervention*의 병행

(4) 반복적인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과 치료적 대책의 균형

(5) 보호 지원 사업과 서비스는 가능한 한 기존 복지 시설이나 내용의 최대 활용

〈그림 1〉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건전 육성 대책



○ 지속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2) 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1) 지원 대상 파악의 체계적 전환
- (2)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종합지원 체계 구성
- (3)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직업 준비도와 고용 기회의 개선
 - 취업기회의 확충
 - 취업능력의 제고
 - 취업성향성 증대
 - 청소년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다변화
- (4) 특정 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2. 종합서비스 체계 구성과 예시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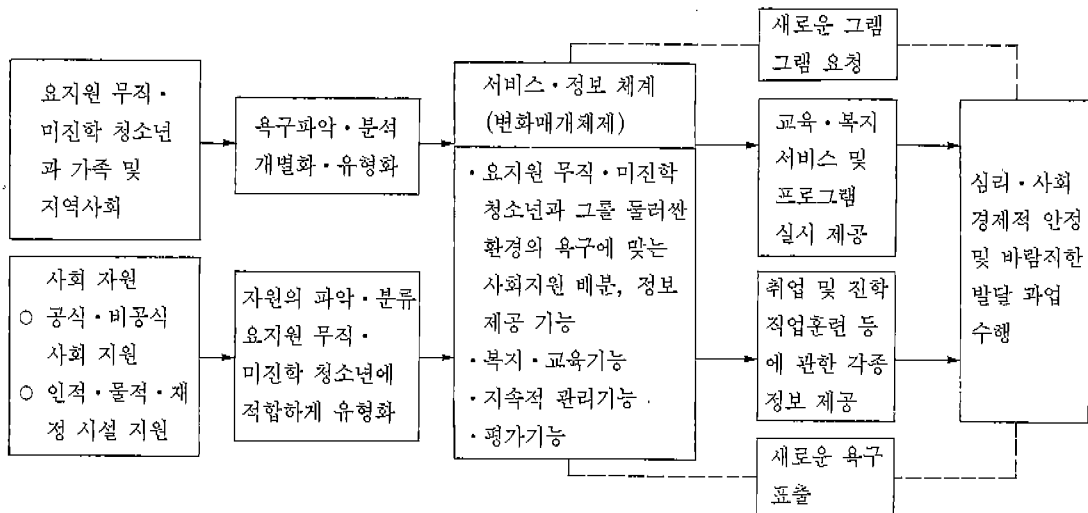
1) 종합서비스 체계의 기본 원칙

- (1) 다양한 특성을 지닌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지원대책은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되어야 함.
- (2) 이에 따른 종합서비스 체계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복지적 권리와 자신의 의사에 따른 진로지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함.

2) 종합서비스 체계

종합서비스 체계는 세 단계의 접근방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제로서, 또한 그 자체가 종합서비스의 장(field)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됨.

〈종합서비스 체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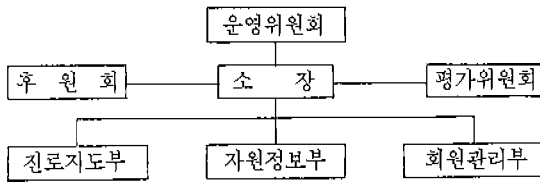
3) 예시적 방안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를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하나로

또한 종합정보·서비스 체계의 핵심적인 장으로서 제시함.

(1) 조 직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 조직표〉



(2) 기능

불우계층 청소년을 위한

- 각종 국가정책과 지원의 실행을 보조하고
- 이와함께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요구와 그들의 환경에 적합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며

- 각종의 복지, 서비스 기능을 함.

또한 이러한 기능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는 장기적으로 민간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함.

- 후원 조직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됨.

- 전문요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임.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는 하나의 예시적 방안임.

3. 진로지원 정책 과제

1) 기본 방향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은 직접적인 구호보다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최선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진로대책은 직업훈련이나 취학알선을 통해 직업준비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여주거나 직접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기회를 넓

혀주고,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에게 자립 자금이나 생업 보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을 통해 자생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함.

2) 정책 과제로서의 제안

(1) 제안 1: 기존의 각종 직업훈련기관내에서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이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의 신설이 바람직함.

- * 필요성-전체 65%가 고퇴 이하의 학력이며 19~24세 연령이 58%를 차지하고 있는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의 실업원인은 사회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많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 * 내용-1.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대상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일정비용 확대 할당

- 2.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 고용촉진 훈련’과 같은 독자적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용

- 3. 일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에 이들을 위탁 훈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제안 2: 비교적 직종이 다양한 사설강습소로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위탁 훈련 범위를 넓히거나, 비조직적 도제 견습훈련 직종을 개발하여 위탁할 필요가 있음.

- * 필요성-무직·미진학 청소년의 다양한 직종 희망에 따라 사무직, 기술계, 예·체능 등 각종 직종을 훈련하고 있는 사설강습소 활용이 바람직함.

* 내 용-1. 문교부 위탁 훈련을 공공 직업 훈련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사무직 또는 서비스 직종에의 할당과 아울러 전국 학원 총연합회 주관의 무료 직업 교육에서도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방안 모색

2.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의 위탁 교육 주체 범위를 노동부에 까지 확대

3. 체육부의 지원을 통한 예·체능계 및 체육계 직종 희망자 수용 모색 및 사설강습소 위탁 훈련의 직종별 분할 위탁.

4. 극도로 어려운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에게 각종의 도제식, 견습훈련 업소로 위탁과 함께 비교적 영세한 이들 업소에 재정적 도움의 제도화

(3) 제안 3: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각종 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청소년 종합직업 정보센터'의 신설 고려

* 필요성-1.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안내에 대한 실제적 제한성.

2. 모든 연령계층에 동일한 형태의 정보제공에 따른 청소년 구직자의 저조한 이용률

3. 청소년의 수준과 희망, 성향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의 전환 필요.

* 내 용-1. '청소년 종합직업 정보센터'는 취업정보와 함께 진로 정보도

관장

(4) 제안 4: 취학 앞선을 통한 학교교육 기회의 제부여는 공공직업 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 중이거나, 그 밖에 비조직적 도제훈련 중인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필요성-1. 진학을 원하는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56%가 경제적 문제로, 12%가 성적 부진으로 인해 학업중단 또는 미진학. 이에 따라 취학 앞선은 직업훈련등과 연계되어 추진할 필요 있음.

* 내 용-1.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에 도제훈련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에게 지원 가능 방안 모색

2. 종합지원 센터등 모든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를 통해 취학 정보의 적극적 제공.

3. 16~18세 미만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 중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소지자에게 최소한 중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 취학기회 제공.

(5) 제안 5: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 생활보호나 의료부조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함.

1. 대다수의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 가정이 극히 빈곤한 것으로 드러남.

2. 이들을 시급히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여 교육, 자활, 의료 등 각종 보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6) 제안 6: 청소년 기금 중 일정액을 활용

하여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융자할 수 있는 대부제도의 신설이 바람직함.

1.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11%가 개인사업이나 상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데 비해 각종 대부 혜택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소외.
2. 교육적 기능면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 이상(20세 이상 등과 같이) 해당자에게 대부제도 활용.
3. 이와함께 정부기관이 제정 보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모색.

4. 사회복지적 정책 과제

사회복지적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보호 지원과 무직·미진학의 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의 보조적 기능 수행에 있음.

1) 상담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소외된 계층으로서 갖는 사회, 경제적 곤란 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상담은 이들의 욕구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음 세가지 형태가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 심리상담

정서적 문제해결, 자아정체감 확립.

(2) 진로상담

취학 및 취업 등 각종 진로상담.

(3) 가족상담

가족문제 해결, 원활한 가족관계 유지. 저연령층 청소년 대상.

이와 같은 상담은 면접, 전화, 편지 등을 통

한 방법과 상담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

2) 결연사업

결연사업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상황에 맞도록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후원, 취학, 선도, 상호결연 등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이 요구됨.

3) 여가활용 프로그램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 (1) 학생 및 근로 청소년에 비해 여가 시간이 많은 한편, 선용의 기회는 극히 적으며
- (2) 퇴폐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렵고
- (3) 건전한 여가관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요구됨.

* 제안

1. 현재 각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세분화, 소규모화되고, 각 시도의 시설이나 여건에 맞게 대상자의 생활을 고려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을 해당 시도에 국한하지 말고 인접 시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2. 수련활동 이외에 다양한 여가활동, 심리, 사회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청소년 실업부조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실업부조가 필요함. 이러한 '청소년 실업부조'는

- 청소년 실업보험의 전 단계로서
- 청소년 고용정책의 보완 기능으로서

○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진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요건으로서 고려할 수 있음.

이와같은 ‘청소년 실업부조’는 직업훈련을 받

고 구직 신청을 한 뒤 일정기간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기준을 설정하고 수혜 방법을 모색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